

제 160회 일본전문가 초청세미나

주제: 0.23 μ SV - 후쿠시마의 미래

강연자: 이 홍 기 (李洪起) (독립 프로듀서 및 다큐멘터리 감독)

독립 프로듀서이자 다큐멘터리 감독인 이홍기 감독의 영화 상영 및 세미나가 6월 4일 국제대학원 소천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본 상영회는 '0.23 μ SV - 후쿠시마의 미래'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상영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이홍기 감독은 영화 상영에 앞서 후쿠시마의 미래는 원전이 많이 분포한 한국의 미래가 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영화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여전히 그 후유증에 시달리며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는 후쿠시마 지역 주민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17인의 평범한 일본 시민들이 후쿠시마의 두려운 미래를 찾아 26년 전 체르노빌 원자력 사고가 있었던 현장을 방문하는 여정을 보여준다. .

2011년 3월11일 일본 후쿠시마 해역 강도 9.0 지진이 일어난 직후 강력한 쓰나미의 여파로 후쿠시마 제1원전이 연쇄적으로 폭발하였다. 이 지진으로 인해 일본 사회는 근본적으로 크게 변화되어 현재는 매우 위기적인 상황이다. 사고 당시 후쿠시마에 거주하고 있던 한 시민은 당시 정부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정부가 하는 말을 믿을 수 없고, 진실을 알고 싶다고 토로했다.

사고 이전 500세대 살던 마을은 쓰나미로 모두 사라지고 현재는 가설주택에 주민들이 살고 있다. 이들은 이전할 땅 조차 준비되지 않아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삶 역시 변화하였다. 원래는 강인한 어부였던 주민들은 사고 이후 쓰레기 수거일 만할 수 있을 뿐이다. 치바현에 사는 주부 시바타 씨는 시청이 측정한 방사능 수치는 믿을 수 없다며 선량을 직접 측정하고 다닌다. 블루시트로 모래밭을 덮어둔 어린이 놀이터에도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문이 붙어있을 뿐이다. 혹시 집안이 오염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시청에 선량측정을 요청해 보았으나, 괜찮다는 시청의 이야기와 달리 본인이 직접 재보았을 때 기준치(0.23 μ SV)보다 더 높은 0.3 μ SV이상이 나왔다. 시청의 측정방식은 1m높이에서만 재서 기준치보다 낮으면 상관없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바타씨는 정부가 무슨 말을 해도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아이들과 놀러 가고 싶어도 안전하게 놀 장소가 없다는 사실에 슬프다. 방사능 때문에 사람들이 어딘가 망가져버렸고, 혹시 자신의 아이가 병에 걸리거나 암이 생기면 방사능 때문이지 않을까 책임감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한다.

후쿠시마의 미래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평범한 17명의 일본 시민들이 별난 조사팀을 만들어 우크라이나 키예프로 향했다. 그곳 소아과 병동에서 소아암에 걸린 아이들을 사리고, 그레고리 병원장의 솔직한 고백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방사능 오염 단계에 관한 자료의 대부분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사고 이후 인구가 대거 이동하여 잠재적 환자나 이미 발병한 환자들이 우크라이나 전역으로 퍼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때문에 통계나 측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폭여부 조사도 힘들고, 후유증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확실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했다. 체르노빌 피해자들에게서 발병한 백혈병은 기존 암보다 더 악성이고, 더 공격적이라 치료하기 힘들며 사고 이후 9300명 갑상선 암으로 사망하였다고 한다.

이 조사의 목적은 후쿠시마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체르노빌 사고 이후 피폭 당한 아이들이 20대가 되어가는 과정 조사한 자료를 보면 왼쪽 뇌 기능 떨어

저 수학과 언어영역의 뇌 기능이 저하되어 있었다. 또한 방사능에 노출된 아이들이 감정적이며 침착하지 못하고 불안증세에 집중력도 떨어졌다.

체르노빌 원전으로 들어가는 검문소. 그 안쪽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고, 사전 허가를 받았으나, 검문소 통과조차 만만치 않았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주민들은 강제이주 당했는데, 얼마나 황급했는지 그 당시 장난감 그대로 놓여 있었다. 검문소 출발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방사선량이 0.3이 넘었을 시 자동적으로 경고음 울리는 측정기가 요란하게 울려 났다. 소련의 붕괴를 재촉했다는 체르노빌 사고. 17명의 평범한 일본 시민들은 후쿠시마가 감추고 있는 진실을 알고 싶어 체르노빌 방문하였고, 1986년 4월 26일에 일어났던 그 사고 이후 2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250톤의 방사능 남아있었다.

알렉산드 2호기 제어실 팀장은 현재 그 어느 나라도 완벽한 방사능 제어시스템 갖춘 나라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방사능 덮개를 덮어놨지만 이 덮개의 수명 100년이고 그 이후 또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었다. 도샤시대학 사회학과 교수 역시 인간에게 원자력 발전소나 핵을 제어할 능력이 없는 것 같으며 후쿠시마 또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콘스탄틴 연구박사도 방사능에 대한 정보 공개 터무니없이 하고 있는 일본 정부를 비판하면서 이로 인해 주민들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라 이야기했다.

코바린은 체르노빌 피해자들의 이주지역이다. 모든 생계 수단 포기한 채 죽음을 피해 이주왔지만 원주민들의 텃세로 힘든 생활을 겪었고, 이주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아이들의 건강상태를 조사하자 많은 아이들이 아프다고 손을 들었다. 어째서 안전한 지역에 살아온 사람들의 아이들까지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가? 사고지역에서 멀고 매우 안전한 도시였다. 그러나 바람을 타고 오염물질 날아들었다. 점점 아픈 학생들이 늘어났고 그 당시 학생들이 자라 학부모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도 아프게 되었다. 원전사고 훨씬 이후에 태어난 학생들 아픈 이유는 환경 때문인지 유전 때문인지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후쿠시마도 앞으로 아픈 사람들 많이 나올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집 한 채에 있는 방사능 오염을 제거하는데 500만 엔이 들지만 일본 정부는 70만 엔을 예산으로 잡고 있다. 정부가 시민을 구제할 의지가 없어 이런 상황을 초래했다고 시민들은 생각하게 되었지만, 일본 정부는 요지부동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저지른 짓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다. 방사능 피해 오랜 시간 지난 후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인식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미량이니까 괜찮다고 하는 건 안 된다. 의약기반연구소의 노무라박사는 누군가를 돕겠다고 오염지역 들어가면 본인은 피폭을 감수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 후 태어난 자손들은 어떻게 하냐고 반문한다.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 피폭자들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피폭지역으로 가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체르노빌을 다녀온 17명의 시민들은 체르노빌 보고회를 열었다. 그들은 이제 각자 자기 자신의 일로 이 사고를 받아들여야 하며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고 했다. 0.23 μ SV 이라는 기준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0.23이라는 수치는 오염제거의 수치이지 이걸로 위험하다 안전하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12년 11월 11일 도쿄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정부의 미숙한 대응을 규탄하는 큰 행사가 열렸다. 호세이 대학 마키노 교수는 이 지진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은 무방비 했으며 복구에 대해서도 미숙하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 사고를 계기로 일본국민의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 정신구조, 윤리관 전체가 전부 무너지고 있고 일본은 침몰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

고 이야기 했다.

영화 상영이 끝난 후 이흥기 감독은 방사능의 위험성은 보이지도 않고, 맛도 느껴지지 않으며, 냄새도 없다는 점에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극 미량이라도 호흡으로 섭취하게 되면 매우 치명적이고 당장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20, 30년 뒤에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질의응답

질문: 체르노빌은 사고 후 시멘트로 다 덮었는데 후쿠시마는 여전히 덮는 조치 안하고 있고 방사능은 계속 방출되고 있는지 알고 싶다.

답변: 작년 11월 말 방문했었는데, 5개월이 지난 지금도 똑 같은 상태이다. 오염된 물도 그냥 내 보내고 있기 때문에 가장 피해본 것은 미국이라고 한다. 이는 굉장히 위험하다. 체르노빌은 콘크리트로 막으며 그게 최선이라고 갖다 부었으나, 이제 그것이 균열되어서 다시 방사능이 새어 나오고 있다. 철골 덮개로 다시 막았으나 이것의 수명은 100년 정도이다. 그 동안 다시 연구해서 또 다른 것으로 메워야 한다. 일본도 사고당시 빨리 시멘트로 막았으면 지금보다 낫지 않을까 라는 말도 있지만 지금 그 핵이 계속 녹아서 땅으로 떨어지고 있고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질문: 일본연구소에서 대지진이 일본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연구 중이다. 작년 2월에 동북지역을 취재한 적 있었는데, 가까이는 못 가고 농촌 등에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곳 분들도 굉장히 지쳐 보였고, 아내와 자식은 다른 곳에 보낸 상태였다. 이렇게 위험한 곳이라고 하면 몇 십 년까지 버려두는 거 나을 텐데 왜 일부 지역에서는 돌아오라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물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에 대해 취재하시며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하다.

답변: 유럽에서 취재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이 묻는 질문이다. 어째서 그 지역에 사람들을 안 빼고 있는지. 사실 강제이주가 쉽지 않고 일본사람들은 공동체가 깨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다. 아주 위험한 곳은 가설주택이나 천막집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주 후에도 문제가 또 생긴다. 일자리나 그 지역사람들과의 갈등 문제가 떠오르고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상대방이 들어주지도 않고 서로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일본 사람들은 이걸로 끝났다면 정치에서도 동요가 일고 있다. 더 이상 발전 나올 수가 없다는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고 있다. 안타까운 상황이다.